



불타는 使命感으로 衆意를 모아 값진 來日의 設計를 이루도록

會 長 李 瑄 根

親愛하는 도서관계 同志 여러분! 희망찬 새 해를 맞이 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동안 도서관 발전의 기수로서 獻身努力하신 여러분께 敬意를 표하는 바이며 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깃드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지난 해는 도협 20주년을 맞은 뜻 깊은 해였으며 우리 도서관인들은 어언 成年이된 도협과 더불어 도서관 사업 발전에 더욱 熱과 誠을 다해 왔습니다.

圖協의 創立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우리 도서관계는 그동안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서관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우리로 하여금 보람과 긍지를 갖게 한 것입니다. 그간 우리의 결속된 努力은 도서관이 社會의 한 계층으로서 「圖書館界」라는 개념을 부각시켰고 정부당국과 協力하여 各種 事業을 推進함으로써 도서관의 이미지를 社會意識속에 침투시켰습니다. 또한 도서관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출판물 등을 발간하여 도서관 봉사의 수공업적 업무를 하나의 과학적 차원으로 올려 놓음으로써 우리 도서관계가 오늘과 같은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서관의 연합체인 도협이 보다 권위있고 실력 있는 團體가 못되느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제까지 우리가 도협을 이끌어 오는데는 많은 역경을 헤쳐 나오지 않으면 안되는 어려운 사회적 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20년간 이끌어온 도협의 存在價値와 의의는 우리 나름대로 크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으며 도협 20年の 歷史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일은 어떤 方法이건 우리들의 구심체인 도협을 지키고 키워나가는 것이 지상과제이며 보다 바람직한 方向감각을 가지고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 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주변에는 모든 부문에서 근대화의 물결이 드높아 가고 있는데 우리 도서관계도 이러한 시점에서 하나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며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이미 주지된 바와 같이 국제도서관협회연맹 대회가 오는 5月 31일부터 6月 5일까지 서울에서 開催됩니다. 이 국제회의는 각국의 文化界 저명인사들이 다수 참석하게 되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 크나큰 행사인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회의를 우리가 誘致할 수 있었던 것은 도서관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집념의 결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당초 目標했던 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이 큰 행사를 잘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여기에는 그 어느때 보다도 우리들의 단합된 힘과 애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더욱 굳은 결의와 결속을 다짐하여 76년도를 우리들의 해로 만들어 되겠습니다. 希望과 期待를 갖게하는 새해를 맞아 선명한 좌표가 설정되어야 하겠습니다.

送舊迎新의 새 아침에 우리들은 불타는 사명감으로 衆意를 모아 참으로 값진 來日의 設計를 이루어 나아 갑시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家庭에 祝福이 깃드시길 다시 한번 祈願합니다.